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Structure and Safety in Local Community

Seok Hyeon Choi^{1#}, Seung Yeon Nam²⁺

¹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ye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² Policy Research Department,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1150 Gyeongsu-daero, Jangan-gu, Suwon-si, Gyeonggido,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opulation structure and safety in local community in the view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Little is known about how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in local communities impact its social stability including crime safety. The findings show as follow. First, both family disorganization and ethnic diversification at the local community could increase social disorder by weakening social network among residents of local communities which is believed as the foundation of the collective control. Second, aging in the local community was found to be positively related to community safety since such demographic structure may increase social control in the local community. Lastly, political participation such as turnout in local ele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ommunity safety. This study suggests that collective efficacy can increase social stability in the local community facing demographic structural changes such as aging, ethnic diversification and family disorganization.

Key words: social disorganization, social control, community safety, population structural changes

1. 서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그리고 이민자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인구구조의 변화가 한국 사회, 특히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결론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

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4.9%로 현재의 추세대로 고령자 비율이 증가한다면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Statistics Korea, 2019). 특히,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고령자의 증가로 지역의 소멸을 고민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Lee, 2019).

1인가구의 증가 또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의 주요한 변화이다. 2018년 현재 전체 가구에서 1인

[#] The 1st author: Seok Hyeon Choi, Tel. +82-43-230-3653, Fax. +82-43-232-7175, e-mail. shsego@knue.ac.kr

⁺ Corresponding author: Seung Yeon Nam, Tel. +82-31-220-3991, e-mail. serena75@gfwi.kr

가구의 비중은 29.3%로 해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tatistics Korea, 2018). 현재의 1인가구는 과거의 1인가구와 다소 성격상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는 학업과 구직을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청년들이 1인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이혼과 별거 등의 가족 해체로 혼자 살고 있는 중장년층과 사별로 인한 고령층이 1인가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Choi, 2018).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즉 단기 혹은 장기 거주 외국인 인구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19년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은 약 222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2019).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상이지만 지역사회별로 그 변화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 인구구조 변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사회와 그렇지 않은 지역사회 간에 어떠한 사회적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 불안정성의 주요한 구조적 요인은 빈부 격차와 계층의 고착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구구조의 변화 또한 사회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다. 과거에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와 이민자의 증가로 인한 인종적 다양성 확대가 인구구조 변화의 주된 특징이었지만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가족 형태의 변화가 사회 불안정의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청년층 인구의 감소와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가치와 문화 역량을 감소시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는 지역사회의 통합과 안정성을 담보하던 지역 공동체를 축소시켜 지역 사회의 집합적 통제

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공동체는 사회적 동질성 기반의 결속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의 목표 및 가치, 그리고 지역성을 보유하고 있을 때 지역공동체로 개념화한다(Nam, et. al.,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인구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지역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불안정성 혹은 해체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범죄와 자살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사회의 통제, 혹은 개인 간의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개인의 일탈행동의 일환으로 범죄와 자살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 Durkheim)이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개인의 자살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통제 약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이라고 주장한 이래 개인의 범죄와 자살과 같은 일탈행동을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보려는 시각은 사회과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Turner, 2019). 한 편에서는 사회 해체의 신호로 불리는 범죄와 자살, 그리고 일탈행동 등은 단순히 낙후지역의 환경에 기인하거나 거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기인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찍이 미국에서 발전한 사회해체(social disorganization)이론은 지역사회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가 약화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사회해체이론은 사회생태학적(social ecology theory)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역사회의 각 부문들이 상호 질서 있게 연계된 사회이며 이러한 연계성이 약화될 때 지역사회의 해체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해체는 다른 의미로 지역사회를 묶고 있던 사회적 규범과 문화가 더 이상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여 이것은 지역 주민의 행위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해체론적 시각에서 한국 지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안정성, 혹은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고령화, 1인 가구, 이민자의 증가로 대표되는 지역사회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안정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해체론 등 사회불안정성과 통합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후에 한국 학계에서 수행된 지역사회 불안정성과 범죄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228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인구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통계지표들을 수집하여 지역사회 범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사회해체론적 시각에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에 기반을 둔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함의를 결론부문에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지역사회 범죄

산업혁명 이후 전통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사회병리적 현상은 20세기 사회과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고전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E. Durkheim)이 과거의 사회 규범과 가치관이 사라지고 새로운 규범과 사회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상태를 아노미(Anomie)로 정의하면서 전통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며 발생하는 가치관의 혼란 상태가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Turner, 2019). 뒤르케임은 사회적 통합과 안정에 이와 같이 규범과 가치관에 기반을 둔 사회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자살론>에서 개신교 사회와 가톨릭 사회를 비교하면서 가톨릭 사회에서 개인의 자살률이 낮은 것은 가톨릭에 기반한 사회적 통제가 강력하게 발휘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Turner, 2019).

뒤르케임과 같이 사회 안정을 위하여 사회의 집단적 통제를 강조하는 시각들은 이후 하나의 이론적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범죄를 사회해체의 지표로 여기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Du Bois(1899)는 필라델피아에 흑인 범죄율이 높은 것은 인종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고전사회학자들의 생각은 이후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자들에 의하여 이론화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생태학 이론(social ecology theory)을 주창한 Park, et. al.(1925)는 개인의 일탈행동과 범죄는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들은 도시 내 공장지대와 노동자들의 집단 거주지 사이의 전이공간 지역이 생태학적 그리고 환경적 맥락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일탈행동과 범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사회생태학자들은 도시 공간을 동심원구조로 상정하고 가장 중심점은 핵심 상업지역, 그 다음 반경은 공장지대, 그 다음은 전이공간(zone of transition), 그 다음을 노동자 거주지역 순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Park, et. al.(1925)는 전이공간의 중심에 가까이 거주할수록 주민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또한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이공간의 범죄 연관성이 높은 것은 전이공간의 특성에 기인하는데 전이공간은 도시공간 안에서 산업과 행정기관의 집적화로 인한 개인의 익명화 현상으로 사회적 통제가 약하고 사회자본도 미약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Park, et. al.(1925)의 연구는 사회해체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Shaw & McKay(1942)는 범죄가 물리적 환경과 사회구조의 부산물이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생태학적 프레임 하에서 고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들은 범죄와 사회적 무질서 등의 사회해체 현상은 지역 단위에서 거시적 사회적 통제가 부재한 결과라고 보았다. 거시적 사회적 통제의 부재를 불러오는 것은 크게 몇

가지 지역적 특성에 기인하는데 먼저 이들이 주목한 것은 높은 인구 이동성과 낮은 사회자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주택 자가 소유율, 직업 불안정성, 빈곤율, 지역 내 인종의 다양성 증가 등으로 지역 내 사회적 통제가 약해질 수 있다. 특히, Shaw & McKay(1942)는 사회해체의 지표로 볼 수 있는 지역사회 범죄율의 원인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성, 높은 인구이동성, 인종적 다양성의 세 가지를 꼽았다.

Sampson & Groves(1989)는 Shaw & McKay(1942)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모두 지역 주민들의 사회자본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라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 내 이혼과 별거와 같은 가족 해체와 도시화 등도 지역사회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다시 말해, 가족의 해체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개인에 대한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도시화는 지역사회의 혈연네트워크와 사적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 기회를 줄인다고 볼 수 있다(Sampson & Groves, 1989).

하지만 사회해체론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사회해체론이 강조하는 핵심 개념, 사회적 통제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 속에서(Lander, 1954), 20세기 후반에는 사회해체론 연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사회자본 이론과 결합한 수정 사회해체론이 등장하였다(Sampson & Wooldredge, 1987; Sampson & Groves, 1989; Smith & Jarjoura, 1989). 수정 사회해체론은 지역 주민들의 관계적 네트워크의 범위와 강도에 기반을 둔 주민들의 연대가 사회적 통제를 강화시킨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지역 내 조직들(가족, 학교, 종교기관, 정치집단 등)과 지역사회의 정치적 리더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Bursik & Grasmick, 1993: 34-38). 하지만 수정 사회해체론 또한 지역 내 사회경제적 수준, 인구이동, 이민자들의 비율 등이 지역사회

범죄율과 인과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 내 관계적 네트워크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수정 사회해체론도 이후에 다양한 시각에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이 지역 사회와를 장악한 지역에서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 연대감이 높지만 범죄율 또한 높은 사례를 볼 때 지역사회의 관계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유대가 반드시 사회적 해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들 수 있다(Markowitz & Felson, 1998; Patillo, 1998; Anderson, 1999). 이런 비판에 대하여 사회해체론은 단순히 지역사회 내의 연대감이 높다고 하는 것이 범죄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연대에 기반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합 효능감(collective efficacy)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강도가 높다고 해서 사회적 통제 강도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참여 의지인 집합효능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ampson, 2004).

2. 지역사회 범죄와 인구 구조

지역사회 해체 지표로 제시되고 있는 범죄와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들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사회의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지역별 범죄율 차이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범죄율 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거 불안정성, 가족의 해체, 빈곤층 규모 등이 지역사회 집합적 통제력을 약화시켜 범죄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의 지역사회 요인에 관한 연구들 중 일부 연구들은 주거불안정성 혹은 지역 내 인구의 높은 인구이동성을 제시하고 있다. Park & Kim(2012)는 한국 도시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거주형태와 이와 연관된 주거불안정성이 사

회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아파트 거주 유형이 지역사회 범죄와 연관관계가 높으며, 그것은 아파트의 특성상 주거민들의 자가 보유율이 낮고 이에 따라 잦은 이사로 지역 사회 내에 이웃 간 네트워크 형성이 약화되기 쉽다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Yun(2012)도 대구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범죄율에 대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거의 불안정성이 지역사회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 인구 변수 중 지역 사회의 가족 해체가 지역사회 해체의 주요한 변수라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Cheong & Park(2010)는 지역사회 살인범죄에 미치는 지역사회 변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내의 세입자 비율, 외국인 비율은 범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지만 이혼율은 살인범죄율과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Cheong & Hwang(2010) 또한 전국 시군구 통계를 분석하여 지역사회 이혼율이 범죄율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의 해체는 지역의 집단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지역사회 빈곤 상황이 범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Cheong & Hong(2013)은 서울시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살인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지역 특성을 분석하여 자치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수록 범죄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동안 범죄학 연구에서 지역의 구조적 요인과 범죄율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해체론에서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 간의 유기적 연대성이 약화되어 지역 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약화시켜 사회문제가 심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는 기제보다는 지역사

회 범죄율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으로서 지역사회 인구요인을 다루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화 등의 한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 요인들에 대한 탐구의 틀로서 사회해체론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죄율 요인으로서의 지역사회의 사회적 환경(social environment)에 연구의 초점을 두는 기존 연구와 달리 지역사회의 인구구조가 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이와 연계된 집합적 통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사회해체론적 시각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III. 분석모델

1.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사회해체론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준을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하고 분석단위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연구대상은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이다. 한편,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변수별로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16년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 다른 모든 변수도 2016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지역사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고찰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변수 및 연구방법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변수 및 연구방법

1) 변수 및 측정지표

본 연구에서의 결과변수는 지역사회 안정성으로,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역안전등급 중 범죄 등급만을 추출하였다. 지역안전등급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1년을 주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되고, 지역안전

Table 1. Variables, measures and data sources

	Variables	Measures	Data sources
Dependent variables	Community stability	Crime prevention indicators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Statistical yearbook of disaster and safety」
Independent variables	Population structures	Ratio of Single person household	Statistics Korea 「Population survey」
		Ratio of the old(+65)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Population statistics based on resident registration」
		Ratio of foreign residents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Statistics on foreign residents by the local government」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Statistics city yearbook of Korea」
	Openness of local community	Ratio of net number of migrants in total population	Statistics Korea 「Internal migration statistics」
	Urbanization	Urban area per person	Korea land and housing corp. 「Statistics of urban planing」
	Political participation	Turnout rate of local electi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Election statistics DB」

지수에 대하여 분야별로 상대등급을 부여한 현황으로 보여준다. 상대등급은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이며, 0에 가까울수록 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지역안전지수는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등급으로,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자연재해, ⑤생활안전, ⑥자살, ⑦감염병의 7개 분야에 대한 상대적 안전등급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안전지수의 7개 분야 중 범죄에 해당하는 등급만을 선택하여 지역사회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하였다.

한편,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해체이론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해체가 범죄와 일탈과 같은 주요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제시한다. 즉,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사회 참여를 낮추고 그 결과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사회해체이론에서 설명하는 인과구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해체이론에서는 지역의 낮은 경제사회학적 여건이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고, 인종이 다양하고 인구 이동이 많은 경우 역시 사회해체에 따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과 인종의 다양성, 그리고 지역 유동성을 지역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은 해당 시군의 총 인구 대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 인구 구성의 이질성은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지역 유동성은 총 인구 대비 순이동인구 비율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안정성, 즉 범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구조로 1인가구 비율과 고령인구 비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 또한, 도시화가 지역사회 일탈의 주요 배경이 된다는 측면에서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을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참여 정도 역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집합적 효용감이 범죄를 억제한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지방선거투표율을 통제변수로서 지역사회 참여의 대리지표로 추가하였다. 각 변수별 측정지표와 자료 출처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연구방법 및 분석모형

본 연구는 사회해체이론을 토대로 지역사회 인구구조가 지역사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logistic Regression)이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수가 지역사회 범죄안전등급으로 1에서 5등급까지 부여되어 있는 순서형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분석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또한, 종속변수인 지역 범죄안전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 중 사회해체이론에서 직접적으로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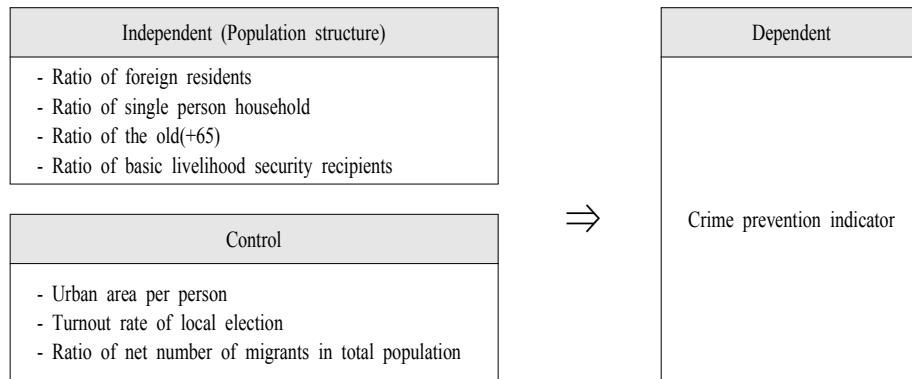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framework

해체를 야기하는 지역 여건으로 제시된 요인들 중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수인 외국인비율, 1인가구 비율, 고령자 비율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이외에 사회해체론 연구에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구조 변수인 지역경제 여건, 지역유동성, 도시화 정도 및 지역사회 참여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사회인구학에서는 인구구조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빈곤층 규모와 인구이동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Kwon & Kim, 2002),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와 이민자 증가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위 세 가지 변수를 인구구조 변수로 설정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의 분석모형을 정리하면 <Figure 1>과 같다.

IV. 분석결과

1. 기초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경제 여건과 지역 유동성, 그리고 사회의 인종적 이질성이 지역의 범죄안전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한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인 지역 범죄안전등급의 평균은 2.97(표준편차 1.151)이고 최소 1에서 최대 5까지의 상대적 순위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안전등급의 경우, 범죄 분야를 포함해서 각각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제시되며 0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엄밀히 말해 범

죄라는 지역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범죄안전등급을 지역 안정성의 측정지표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역코딩을 하여 범죄안전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낮아지는 형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인구구조 변수 중 1인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평균 30.28%(표준편차 5.420)이었고, 최소 17.70%에서 최대 45.10%까지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최소 6.65%에서 최대 37.49%이며 평균은 18.70%(표준편차 7.834)로 나타났다. 외국인인구 비율은 최소 0.63%에서 최대 13.92%까지 평균 3.43%(표준편차 2.24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및 사회해체론에 기반한 통제변수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최소 0.75%에서 최대 8.27%까지 나타났고 평균은 3.87%(표준편차 1.553)이었다.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인구가 총 주민등록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 순이동인구 비율은 평균 0.01%(표준편차 2.534)로 최소값은 -9.14%, 최대값은 22.28%였다. 도시화 지표로 사용한 1인당 도시지역면적의 경우, 최소 0에서 최대 743.66km²으로 평균은 154.98km²이었다. 지역사회 참여 지표로 사용한 지방선거투표율의 경우에는 최소 51.6%에서 최대 82.7%까지 나타났으며 평균은 64.44%(표준편차 7.813)였다.

원인변수들이 모두 연속변수인 반면, 본 연구에서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results

Variables	N	Min	Max	Aver	SD
Crime prevention indicator ¹⁾	228개	1.00	5.00	2.97	1.151
Ratio of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	228개	0.75	8.27	3.87	1.558
Ratio of foreign residents (%)	228개	0.63	13.92	3.43	2.245
Ratio of net number of migrants in total population (%)	228개	-9.14	22.28	0.01	2.534
Ratio of single person household(%)	228개	17.70	45.10	30.28	5.420
Ratio of the old(+65) (%)	228개	6.65	37.49	18.70	7.834
Urban area per person(km ²)	228개	0.00	743.66	154.98	120.878
Turnout rate of local election (%)	228개	51.60	82.70	64.44	7.813

¹⁾ Crime prevention indicator is recorded from the highest grade as 1st to the lowest grade as 5th.

Table 3. Crime prevention indicator

	Total	1st	2nd	3rd	4th	5th
N	228	25	57	68	56	22
%	100.0	11.0	25.0	29.8	24.6	9.6

의 종속변수인 지역 범죄안전등급은 서열변수로서, 1에서 5까지의 지역별 상대적 등급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론, 지역안전등급이 5개 등급별로 비율을 정하여 상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실제 본 연구에서의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범죄 안전 등급의 분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빈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도 분석 결과, 지역 범죄안전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는 22개 지자체, 가장 낮은 등급에는 25개 지자체가 포함되었고, 중간 등급에 68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가장 많았다. 등급별 비율은 당초 설정되어 있는 등급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영향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지역 범죄안전등급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카이제곱 검정 결과 유의확률은 0.000으로 투입된 원인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델로 판정되었다. 유사 결정계수는 Cox&Snell의 경우 0.298, Nagelkerke의 경우 0.313으로 나타나 종속변수에 대한 원인변수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순이동인구 비율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95% 신뢰수준에서 지역 범죄안전등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1인가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및 외국인 인구 비율과 같은 지역사회의 인구구조와 범죄위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서 외국인 비율, 1인가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과 같은 인구구조 요인은 모두 지역의 범죄안전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범죄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요인마다 달랐는데, 먼저, 분석결과에는 서구 사회 대상 연구에서도 지역사회 해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인, 즉 이민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범죄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불안정화를 보여주는 1인가구 비율도 지역사회 범죄위험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고령화인구 비율은 지역사회 범죄위험도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두 변수의 범죄위험도의 관계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구구조 변수와 지역사회 범죄 위험도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 즉 고령화, 다문화, 그리고 1인가구의 증가 중 고령화를 제외한 다문화 현

상과 1인가구 증가는 지역사회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회해체론에서 주장하듯이, 이혼과 사별, 별거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강화되고 있는 가족해체 현상은 개인의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의 가족과 다른 조직 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약화시켜 지역의 집합적 통제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외국인 즉 이민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도 1인가구 증가와 비슷하게 지역사회 내의 개인 간 네트워크 구축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분석결과는 기존의 사회해체론 연구들의 분석결과와 부합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고에서 고령화의 지표로 제시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 변수는 지역사회 범죄 위험도와 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지역사회 고령화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세대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므로 지역의 네트워크의 분절화를 가져와 지역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Ahn, 2020). 하지만 사회해체론적 시각에서 기존 사회의 전통과 규범을 내재화한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 내 집합적 사회 통제력이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본고의 분석결과가 시사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회해체론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용 가능성 여부의 관점에서 통제변수로 제시된 변수들과

지역사회 범죄위험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높을 경우 지역 범죄 안전도가 낮았다. 즉, 지역사회내의 소득빈곤층 비중이 클수록 지역의 범죄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의 낮은 경제적 여건이 사회해체를 야기한다는 사회해체론이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일정부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화와 산업화의 대표적인 지표로서 1인당 도시지역면적으로 측정된 도시화 정도도 증가할수록 범죄안전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이고 있어 도시화로 인한 사회해체의 결과도 일정 수준 검증이 된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인구유동성과 지역사회 불안정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본고의 분석결과는 기존 국내 지역사회 범죄율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들과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참여도를 측정한 지방선거 투표율의 경우, 증가할수록 범죄안전 정도가 높아져 사회참여가 많은 지역에서의 사회해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정 사회해체론에서 제기한 사회의 집합효능감(collective efficacy), 즉 지역사회 참여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확신이 지역의 집합적 통제력을 높여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주장에 비추어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참여가 지역사회 범죄위험도에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본고의 분석결과 또한 주민들의

Table 4. Results of ordered logistic regression

		B	Std. error	PAR	95% conf. interval	
					Min	Max
Threshold	[Crime prevention indicator=1]	-2.730	2.110	0.196	-6.865	1.405
	[Crime prevention indicator=2]	-.0840	2.096	0.688	-4.949	3.268
	[Crime prevention indicator=3]	0.699	2.096	0.739	-3.410	4.807
	[Crime prevention indicator=4]	2.583	2.109	0.221	-1.550	6.716
Location	Single person household	-0.157	0.033	0.000**	-0.222	-0.092
	The old(+65)	0.071	0.036	0.048**	0.001	0.142
	Ratio of foreign residents	-0.229	0.065	0.000**	-0.356	-0.103
	Basic livelihood security recipients	-0.333	0.118	0.005**	-0.564	-0.103
	Net number of migrants in total population	0.023	0.051	0.651	-0.077	0.124
	Urban area per person	-0.003	0.001	0.027**	-0.005	0.000
	Turnout rate of local election	0.102	0.030	0.001**	0.044	0.160
Goodness-of-fit test of the model		MFI chi-square 80.588** (Sig=.000)				
Pseudo R square		Cox&Snell .298 / Nagelkerke .313				

집합효능감에 기반한 지역사회 참여가 사회적 통제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세 가지 주요한 인구구조 변화인 고령화, 이민자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가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불안정성에 대한 학문적 통찰력을 보유한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의 시각에서 보면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은 문화와 규범에 기반을 둔 지역의 사회 통제력, 즉 집합적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수정 사회해체론자들은 이러한 사회 통제력이 지역 주민들의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자본에 의하여 강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에서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가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서구의 사회해체론의 실증분석 결과를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내의 인종적 다양성의 확대를 나타내는 외국인 인구비율과 가족 기능의 축소를 나타내는 1인가구 비율이 지역사회의 불안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65세 고령 인구비율 변수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수와 지역사회 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수정 사회해체론적 시각에서 이해하면, 외국인의 증가와 1인가구의 증가는 지역사회 내에 신뢰와 호혜성의 네트워크 구축을 어렵게 하여 지역사회 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외국인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여전히 어려운 편이다. 우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는 동남 아시아인들에 대한 내국인의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한다는 연구들(Jo, 2010; Hong & Ah, 2011)에 비추어, 다문화 사회에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1인가구 또한 지역사회가 직면한 주요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1인가구의 상당수를 학업과 구직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이혼과 별거 등으로 가족이 해체된 중장년과 고령화로 인하여 배우자와 사별한 노인층이 1인가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Choi, 2018).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1인가구는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주거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내 활동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Choi, 2018), 1인가구의 증가는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서울과 같은 일부 지자체가 1인가구, 특히 중장년 1인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소셜다이닝 참여 지원 등의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는 점은 집합적 사회통제력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지역사회의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고의 분석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기존 전통적인 규범과 문화를 보유한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통제력이 높아져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령층의 인구비율 증대가 지역사회 전체적인 신뢰와 호혜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고령층 지역 주민과 청년층, 혹은 타(他)지역에서 이주한 지역민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규범과 문화상의 차이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층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곧 지역사회 전체적인 집합적 통제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보다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본고의 연구주제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지역사회 참여가 지역사회 안정성을 높인다는 본고의 분석결과는 지자체가 고려해야 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기존의 규범과 문화보다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참여를 하고자 하는 집합효능감이 인구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통제력을 높여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집합효능감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과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Choi, 2020). 본고에서 관심을 가진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이민자의 증가가 단기간 바뀔 수 없는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적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소득, 연령, 학력,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주민들 간의 신뢰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의 차원의 교육, 문화,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So Young. 2020. Gerontophobia in the Aging Society. *KIRI Quarterly*. 35: 30-32
- Anderson, Elijah. 1999. *Code of Street: Decency, Violence and the Moral Life of the Inner City*. NY: W. W. Norton & Company.
- Bursik, Robert Jr. and Harold G. Grasmick. 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Maryland: Lexington Books.
- Cheong, Jin Seong and Eui Gab Hwang. 2010. A Macro-level Study on the Cause of Homicide Rate: Nationwide Analysis Using Spatial Regression Model. *Korean Journal of Criminology*. 22(1): 157-184.
- Cheong, Jin Seong and Hyun-Ho Park. 2010.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uctural Covariates on Homicide: Nationwide Analysis Using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1(1): 91-119.
- Cheong, Jin Seong and Sung Wook Hong. 2013. Multi-leve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Homicide.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18(1): 1-15.
- Choi, Seok Hyeon. 2018. *A Survey for Life Quality of Gyeonggi-do-VII: Single Household*. GRI Issue & Analysis. Suwon: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92.
- Choi, Seok Hyeon. 2020. Why Engage in Public Service Co-production for Conflict Prevention?: A Study of Motivation of Citizens' Participation on Co-production in Seoul. *Crisisonomy*. 15(3): 1-24.
- Du Bois, W. E. B. 1899. *The Philadelphia Negro: A Social Stud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Hong, Bong Sun and Yong-Ah Ah. 2011. The Study of Adolescent's Social Distance to Foreigners.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3): 165-187.
- Jo, Dong-Gi. 2010. Social Distance and Attitude Toward Migrants' Citizenship in Korea.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3): 53-73.
- Kwon, Tae Hwan and Du Sub Kim. 2002. *Inguui Ihae*. Seoul: SNU Press.
- Lander, Bernard. 1954. *Toward an Understanding of Juvenile Delinquenc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e, Sang Ho. 2018. Hangukui Jibangsomyeol. *Goyongdonhyang Brief*. KEIS.
- Markowitz, Fred E. and Richard Felson. 1998. Social-demographic Attitudes and Violence. *Criminology*. 36(1): 117-138.
- Ministry of Justice. 2019. Monthly Report of Policies for Border Controls and Foreigners in Korea(December in 2019).
- Nam, Seung Yeon, Ul Sik Kim, Seok Hyeon Choi, Ju Hui Park, and So Yeon Lee. 2014.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Models Based on Local Community*. GRI.
- Park, R., E. W. Burgess, and R. D. McKenzie. 1925. *The City: Suggestions for the Study of Human Nature in the Urrban Environ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 Seong-Hoon and Joon-Ho Kim. 2012. Social Ecology Perspectives on Victimization in Korean Cities.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3(2): 259-293.

- Pattillo, Mary E. 1998. Sweet Mothers and Gangbangers: Managing Crime in a Black Middle-class Neighborhood. *Social Forces*. 76(3): 747-774.
- Sampson, R. J. and W. B. Groves. 1989. Community Structure and Crime: Testing Social-disorganization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64(4): 774-802.
- Sampson, Robert J. 2004. Neighbourhood and Community: Collective Efficacy and Community Safety. *New Economy*. 11(2): 106-113.
- Sampson, Robert J. and John D. Wooldredge. 1987. Linking the Micro-level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Lifestyle-routine Activity and Opportunity Models of Predatory Victimiz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3(4): 371-393.
- Shaw, C. and H. McKay. 1942. *Juvenile Delinquency and Urban Area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mith, Douglas A. and G. Roger Jarjoura. 1989. Household Characteristics, Neighborhood Compositions and Victimization Risk. *Social Forces*. 68(2): 621-640.
- Statistics Korea. 2018.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ww.kosis.kr
- Statistics Korea. 2019. Statistics of the Old. www.kosis.kr
- Turner, Jonathan. 2019. Translated by Tae Hwan Jung.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Seoul: Nanam.
- Yun, Woo-Suk. 2010. Examining the Impact of Police Formal Social Control on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1(3): 381-407.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Turner, Jonathan. 2001. 정태환 역. 현대 사회학 이론. 서울: 나남.
- 권태환,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남승연, 김을식, 최석현, 박주희, 이소연. 2014.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적 경제 유형별 모델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박성훈, 김준호. 2012. 범죄현상에 관한 사회생태학적 접근: 지역요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3(2): 259-293.
- 법무부. 2019. 2019년 12월호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 안소영. 2020. 고령사회의 노인혐오. *KIRI고령화리뷰*. 35: 30-32.
- 윤우석. 2010. 경찰의 공식적 사회통제가 지역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3): 381-407.
- 이상호. 2018.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 정신성, 홍성욱. 2013. 사회구조적 지역특성과 살인범죄에 관한 다층모형분석. *통계연구*. 18(1): 1-15.
- 정진성, 박현호. 2010. 지역사회의 구조적 특성이 살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음이향 회귀분석. *형사정책연구*. 21(1): 91-119.
- 정진성, 황의갑. 2010. 살인범죄의 원인에 대한 거시적 분석: GIS를 활용한 공간회귀 모델링. *형사정책*. 22(1): 157-184.
- 조동기. 2010.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시민권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3(3): 53-73.
- 최석현. 2018.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 VII: 1인 가구.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292.
- 최석현. 2020. 갈등관리형 공동생산(Co-production) 참여 동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공유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 동인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6(2): 1-24.
- 통계청. 2018. 인구총조사. www.kosis.kr
- 통계청. 2019. 2019 고령자 통계. www.kosis.kr
- 홍봉선, 아영아. 2011. 청소년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7(3): 165-187.

지역사회 인구구조와 지역 안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 범죄안전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해체론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인구구조와 지역 안정성의 관계 검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역사회 범죄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과 도시화 수준, 지방선거투표율을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역사회 내 인종의 다양성과 가족해체 현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지역사회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는 지역사회 안전성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지방선거투표율로 본 사회참여는 지역사회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집합적 효능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공동체 및 공유 활동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사회해체론, 사회통제, 지역 안정성, 인구구조 변화, 범죄안전

Profiles **Seok Hyeon Choi** : He received his B.A, M.A. from Yonsei University and was conferred DPhil. by University of Oxford in 2010.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is interesting subjects and areas of research and education are social policy, migration integration, community and inequality. He has published numerous articles in journals and books(shsego@knue.ac.kr).

Seung Yeon Nam : She received her Ph.D. from Konkuk University, Korea in 2012. She is a Research fellow of the Policy Research Department of Gyeonggido Family & Women Research Institute, in which she has been working since 2015. Her interesting subjects and areas of research are community, social economy and women policy. She has published 15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50 research reports, including 30 co-author reports(serena75@gfwri.kr).